8월 더프리미엄 모의고사
세계지리 총평 및 분석

출제 경향 분석

- **세계화 2**
  - 고지도 1
  - 지리 정보 1
- **지연재화 5**
  - 지형 2
  - 기후 3
- **인문지리 3**
  - 종교 1
  - 도시 1
  - 인구 1
- **지방 2**
  - 시장 1
  - 애니깨 1
- **지역지리 6**
  - 몬순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2
  - 건조 아시아와 북부 아프리카 1
  - 유럽과 북부 아메리카 1
  -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중·남부 아메리카 2
- **영화와 공존의 세계 2**
  - 환경 1
  - 경제 블록 1

이번 시험의 출제 경향을 살펴보면, 통상 세 문항이 출제되던 지형 단원에서 한 문항이 줄어든 대신 세계화와 영화와 공존의 세계 단원의 비중이 각각 두 문항으로 높아진 점이 특징입니다.

총평

이번 시험은 전반적으로 기존 기출 문제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익숙한 유형의 문항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최상위권 변별을 위한 소위 '킬러 문항' 없이, 대부분 기출 문제를 변형하거나 아이디어를 차용한 형태로 출제되어 기출 분석을 충실히 한 학생이라면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1. 지형 I, 세계화/영화 I

전통적으로 꾸준히 출제되던 지형 단원이 2문항으로 축소된 반면, 지형 세계화와 마지막 단원 영화와 공존의 세계가 각각 2문항씩 출제되었습니다.

2. 기출 변형 중심의 출제, 그러나 난이도는 부족

대부분의 문항이 최근 수능 및 평가원 모의고사 문항을 연상시킬 만큼 유사한 소재와 형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예) 14번 냉대 기후, 15번 대지형, 17번 아프리카 자원 등) 이는 기출 문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지만, 일부 문항은 변형 과정에서 난이도가 지나치게 낮아지거나 문제 해결의 핵심 단서를 과도하게 제공하여 변별력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더욱 세분 시험이 아닌 미프리미, 12번 건조 아시아)

3. 시험지의 완성도와 디테일의 아쉬움

문항 내용 외적으로 시험지의 완성도 측면에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일러스트의 폰트 문제, 문항 배치의 아쉬움, 평가원 기출 표현과 다르게 다른 용어 사용 등은 시험의 실전 감각과 신뢰도를 저해하는 요소였습니다. 또한, '정하니 조용 같은 영문명 기호를 선지에 배치하면 연즈 지원하거나, 용무한 소재를 단원적으로만 활용하면 폰트이름에는 등 문항 설계의 정교함이 부족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결론 및 학습 방향

이번 시험은 차근히 기출 학습 완성도를 점검하고, 변화된 단원별 출제 비중을 확인하는 기회로 삼기에 적절합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난이도가 평이한 만큼, 이 시험의 점수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수능에서는 다육 정교해져 실제적 문항과 변별력을 가르는 새로운 자료가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험을 통해 확인한 기본 개념을 복습하는 것을 넘어 기후나 지역지리 등 핵심 단원에서 나타날 수 있는 복합적이고 심화된 문제에 대비하는 학습을 이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1 지리 정보

세계화 단원에서 꾸준히 등장하는 출제 유형입니다. 이 경우 보통 고지도 문항이 먼저 배치되지만, 이번 시험에서는 지리 정보 문항이 먼저 등장했습니다. 이러한 지리 정보 문항은 단순한 지명이나 위치를 기억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으며, 지명에서 지역에 대한 시사 상식 일부도 요구합니다. 문항을 도출할 수 있어 평이한 수준이었습니다.

2 고지도

일러 인권문항이 고지도 문항이 2번에 배치되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폰트 문제였습니다. 사회, 윤리, 역사 등 다른 과목에서도 고지도의 폰트를 평가원 양식에 맞추려고 노력하지만 일부러는 일반 고지도를 사용하여 시험지의 일관성이 떨어졌습니다. 유사의 표현이 많은 시험지이기 때문에 이러 통일성을 갖추고 있는 만큼, 아쉬운 세부적인 완성도에 조금 더 신경 쓸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3 열대 기후

6월 모의고사와 마찬가지로 3번에 기후 문항이 배치되었습니다. 큰 틀에서 제시되었지만, 세 지역의 특징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다소 애매하게 느껴지는 문제였습니다. 특히 세계사 수업에서 자주 다루는 열대 고산도 내 수직분포 설명을 곁들여 다양한 기후 특징을 제시하는 방식이 더욱 효과적이었을 것입니다. 선택지 구성 또한 불필요하게 길게 구성되었습니다.

4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문항의 길이는 길지만, 실제로는 단 하나의 국가만 파악하면 되는 문제로 변별력이 부족합니다. 두 번째 다시는 카보기오로, 국가를 특정할 수 있어, 지도에 A~E 국가를 표시하기보다 일반적는 방식이 더욱 효율적이었을 것입니다. 선지 구성 또한 불필요하게 길게 구성되었습니다.

5 온대 기후

이번 시험에는 여러 기후지표를 제한으로 다루기보다 기법별 기후의 특징을 묻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실제 수능에서는 더 복합적으로 기후 문제가 출제될 것에 대비해야 합니다. 지도에 도시를 표기하는 대신 발문으로 제시한 것이 특징이었으며, 평가원 6월 모의고사 기후와 같은 방식이었습니다. 문제 자체는 무난한 수준이었습니다.

참고로 평가원 시험은 보통 문항 사이에 최소 한 줄의 간격을 두지만, 5, 6, 7번 문항은 줄 간격이 매우 좁게 배치되어 한입에 여러문항이 뚜렷하였는 아쉬움을 남깁니다.

6 몬순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① 인도에 주로 도시는 수도이다.
② 인도에는 인구밀도가 높은 곳 외에 건조한 지역에서도 많다.
③ 인도는 다양한 주민과 뚜렷한 고도가 많다.
④ 인도는 서부 도시 중심 도시 지역이 가장 많은 국가는 아니다.
⑤ 인도는 서부 중부 동부 도시 지역이 가장 많은 국가는 아니다.

7 종교

선택 필고가 제시되지 않았으며 일러이시아를 통해 네 종교를 모두 파악해야 하는 까다로운 문항이 될 수 있었겠으나, 난이도 조절을 위해서인지 불교를 명시하여 비교적 쉽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수능에서는 종교 문항도 그대로 다른 방식한 출제 문항으로 출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8 식량 자원

지문의 한계일 수 있으나, 국경선이 그려진 지도가 제시된 점은 아쉽습니다. 이러한 형식으로 제시하기보다 지명만만 제공하더라도 충분히 문제 풀이에는 어려움 없이 해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9 인구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10 유럽과 북부 아메리카

제1 구준식 고전점은 환경 문제와 연계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출제되었습니다. 다만 제목하는는 좋은 소재가 있음에도 프로스 사 지표 이해를 묻지 않은 점은 아쉽습니다. 평가원은 적어 수능 내용을 복습하는 수준으로 새로운 내용은 없었습니다. 비교의 경우는 연안지역 이상 복해 연안지는 않았지 특히할 수 있었으며, 국경선이 제시된 지도가 세계에 포함되어 있어 난이도는 최근 기출 문제보다 낮았습니다.

11 건조 지형 & 해안 지형

지형 지제보다 형성 원리를 묻는 독특한 문항이었습니다. 선지의 완성도가 매우 낮습니다. 일반적 지형에서 그중하게 되게 지형과 같은 선택지는 없었으며 핵심과 거의가 일치 출제한 상태를 의심하게 할 정도입니다. 보다 참고한 선지 구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12 건조 아시아와 북부 아프리카

적년 9월 모의평가와 유사한 출제 세 국가 문항이었으며, 국가별 선지별 단서가 과도할 정도로 많이 난이도는 낮았습니다. 최근 출제되지 않았던 '대추야자'를 다루었는 점에 의미를 둘 수 있습니다.

13 중·남부 아메리카

불라이아가 내륙국이는 점을 직접 묻지 않는 문제였으며, 동아시아에 원정 식어야 했던 수도라는 사실을 기억해 묻지만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자이어 다른 국가별 제시하는 문제이나 난점을 갖았고 이 문항만 보아도 수도가 너무 도시가 아니라는 사실 확인 이상의 의미를 갖기 어려워 보입니다. 선지 또한 기본적인 내용 확인 수준이었습니다.

14 냉대 기후

유사한 세계화 적년 수능 3번 문항을 그대로 변형했습니다. 다만 한번 문항의 넣다라면은 좋은 문제이나 같은이는 문항을 제대로하지 않은 기억가 기업으로 바꾸었어 눈에 띕니다. 표현을 수정한 특별한 의도가 있는지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선택지의 오른 시험이 가장 문항들은 변별력을 갖지 못했습니다.

15 대지형

2024학년도 수능 9번 문항을 변형한 문제입니다. 동아프리카 지구대가 자고지대라는 '자는다는 표현이 다 지연스럽습니다. 오른 세계에서 해당 고도가 가장 높은 곳인 케냐산이에도 2번 문항의 선지에 등 표현하지에 달부 출제되는 점이 있습니다. 14번과 마찬가지로 문항 기출과 만는 지역지리라는 표현을 만는는 문제에 위치한다면 세분 것을 보면, 두 문항 모두 비슷하고 표현을 수정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16 몬순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스리랑카 관련 내용은 원어명기 때문에, 없어 해당이다고 하더라도 어려움을 갖분하는 기준 문항이 없었습니다. ㄱ. 인구밀도가 높은 곳은 인도이다. 또한 ㄴ. 인구 밀도가 높은 곳은 방글라데시이다. 두 선지만으로는 평가원 출제하지 않았던 난이도가 조금 더 높아졌을 것입니다. 지문에서 다양한 '정하면을 사용하였는 것 또한 아쉬운 점입니다.

17 에너지 자원

난이도 조절을 위해 이러이지가 제시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항 역시 적년 수능 에서 같은 형식을 참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원이 대량발표 과기하는 것을 '대량생산'으로 묻은 세부적인 분석을 물어보았습니다. 세분 선지 또한 '일반적이 기업 조건 '넓다는 정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정하면을 사용하였는 ㅋ 선지의 표현이 느낌이었습니다. 이 선지를 제외하고 2번 문항을 만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18 도시

상가로운인으로도 도시와 촌락을 묻지 않았을 수 있다. 반수가 변별력을 갖지 못했습니다. 선택 인도, 일본 중국이는 국가 제한 그것을 제시하지 않았으면 난이도가 조금 더 높아졌을 것입니다. 일본과 일도 선택은 어렵기 않았습니다.

19 경제 블록

첫 단원인 '세계화' 가 두 문제 출제되었습니다. 이러한 단원별 출제 비중을 확인하는 것 역시 수능에서 중요한 학습 요소입니다. 실제 수능에서는 이 단원의 문항 수가 한 문항으로 줄고 경제 블록 이외는 출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0 환경

환경 문제였네도 평가 요소에 충실하지 않은 문항입니다. 에에에스스이의 해법 고도는 상당히에도 난이도가 높았으며 에에에스스이의 평가 요소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불분명합니다. 또한 일러스트에 사용된 영조체가 시험지 전체의 영조체와 달라 아쉬움을 줍니다.